메시지 9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내적 체험에 따라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됨

성경: 삼하 7:12-14상, 엡 3:16-21

Ⅰ.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 마 16:18.

A.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고 사람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다(엡 3:16-17상). 이러한 상호 거처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요 15:4-5상, 요일 2:27-28, 3:24, 4:13, 15-16, 계 21:3, 22).

B.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다 — 삼하 7:12-14상, 엡 3:17상, 요 14:20, 갈 4:19.

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이 한 가지를 위해 있다 — 빌 2:13, 엡 3:17상, 골 3:10-11.
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인성 안으로 건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 엡 3:17상.

Ⅱ.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고 계심을 계시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예시된다.

A. 주님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흙, 곧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며 그들 속에서부터 표현되시기 위한 것이다 — 마 13:3.

B. 씨는 흙 속에 심어져 흙의 양분으로 자란다. 그 결과로 나온 산출물은 씨와 흙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마 13:23.

C.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어떤 양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에 더하여 사람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의 영에는 인간적인 양분이 있고, 사람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씨가 자라기 위한 흙이다 — 요일 3:9, 벧전 1:23, 골 2:19.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9 (계속)

1.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씨에 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 시 78:8, 마 5:3, 8.
   a. 우리가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를 자라게 하는 어떤 양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 엡 3:16-17, 롬 8:6, 딤전 4:7.
   b. 우리가 생명의 씨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열어 드려야 하고, 주님과 동역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 마 13:3-9, 19-23.
2.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화하시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양분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의 일, 곧 그분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수행하신다.

D. 성경에 따르면, 성장은 건축과 동일하다. 주 예수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마 16:18)라고 선포하셨다. 이러한 건축은 신성한 씨가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일어난다(요일 3:9, 엡 4:15-16, 골 2:19, 엡 2:21-22, 고전 3:1, 6-9, 12, 16:13).

E.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영적인 소화와 동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은 변화,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일어나는 점진적이고도 내재적인 신진대사적인 바뀜을 산출한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고후 3:18.
   1. 하나님의 건축의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유기적이시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숨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 6:51, 57, 7:37-39, 20:22.
   2.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들이쉼으로써 그분을 누릴 때, 신진대사의 과정, 곧 영적인 소화와 신진대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다. 이러한 내적인 신진대사가 곧 변화이며, 변화가 곧 건축이다 — 롬 12:2, 빌 1:20-21, 비교 계 21:18, 4:3.

F.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사실상 여호와께서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서 예표의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이다.

메시지 9 (계속)

Ⅲ.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도록 믿는 이들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관해 기도하였다 — 엡 4:12, 16, 2:21-22.

A. 바울은 아버지께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점유하시고 소유하시고 침투하시고 적시실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 엡 3:16-17상.

B. 삼일 하나님은 거대한 기계에 비유되실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한 가지 공과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 우주 안에 높은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지만, 그분은 단지 '기계'이실 뿐이며 운전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다.

1.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기도를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대표하였다.
2.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이 우주적인 '기계'의 세 가지 '부품'이시고, 몸은 운전자이다. 우리가 운전자로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아버지는 통로이신 그분의 영을 통해 일하시어,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하심으로써, 목표이자 표적이신 아들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

C.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능력으로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 안에 있지 않고 대체로 겉사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엡 3:16, 1:19-22, 3:20.

D.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모든 공간을 점유하기를 갈망하신다.

1.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카토이케오'라는 단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처소에 정착하다' 혹은 '거처를 만들다'이며, 이 단어의 접두사 '카타'는 '아래'를 의미한다 — 엡 3:17상.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을 위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사랑 안에서 터를 잡고 있다 — 엡 3:17.
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게 되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차원은 바로 우주의 차원이다 — 엡 3:18.
   a.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입방체처럼 삼차원적이어야 하며, 선처럼 일차원적이어서는 안 된다.
   b. 성막과 성전 모두에서 지성소는 입방체였다 — 출 26:2-8, 왕상 6:20.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9 (계속)

c. 결국 하나님의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만 이천 스타디온인 영원한 입방체, 곧 지성소일 것이다 — 계 21:16.

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 삼일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 엡 3:19-21, 비교 창 24:47, 53, 61-67.

E.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즉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확장하시어 우리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 — 딤후 4:22, 고전 6:17, 엡 3:17상.

1. 우리 마음은 우리의 속부분들의 총체이고, 우리 내적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성향과 애정과 기쁨과 갈망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속 각 부분에 공급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 더욱더 정착하시고 거처를 정하시면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소유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3.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 건축에 관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려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그들의 내적 존재 전체를 소유하시고 점유하시고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그러한 상태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점유하실수록, 우리는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욱더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 엡 2:21-22, 4:12, 16.
5. 에베소서 3장 17절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 것에 대해 말한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는 식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터를 잡는 것은 우리가 건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 에베소서 3장 18절에 따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즉 단체적이고도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 곧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음을 계시한다.
7.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충만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이다 — 엡 3:19.